

“영양만점 임실N치즈 드세요”

도의원·지역 언론사 검찰 고발

박희승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유가공업체 돕기 위해 전북도청 로비서 관련 유제품 10% 특별할인 판촉행사 진행

청정지역 임실군이 전라북도와 손잡고 코로나 어려움을 겪는 유가공업체와 지역민에게 힘을 보태기 위한 임실N치즈 특별할인 판촉행사'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실군은 12일과 13일 전북도청 로비에서 임실N치즈와 치즈소시지핫도그 등 관련 유제품 30여종에 대한 10% 특별할인 판촉행사를 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침체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유가공업체를 돕는 동시에 지역민에게 영양만점 치즈를 저렴하게 제공해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다.

앞선 5일과 6일 임실군청 로비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한 군은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의 기대 이상의 반응에 힘입어 이를 확대해 도청에서 추진한다.

실제 군청에서 진행된 판촉행사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이틀만에 1600만 원

의 상담을 판매하는 성과를 이루며 유가공업체에 많은 도움이 됐다.

특히,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들의 식사 및 간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 등에게 치즈는 물론 치즈소시지 핫도그와 치즈돈까스, 요구르트, 치즈 스틱 등이 큰 인기를 끌며 판매를 상승을 견인했다.

군은 이 같은 호응에 힘입어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전북도청 판촉행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청정임실에서 만들어진 치즈는 소화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유를 발효해 만든 치즈는 우유보다 영양성분이 더 풍부한 고단백, 고칼슘 에 면역력이 높은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치즈에 다량 함유된 아연 성분은 체

내 면역력을 향상시켜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영양만점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도청 방문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가공업체를 돕는 동시에 많은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임실N치즈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심민 군수는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로 판촉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공업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청정임실에서 만든 치즈를 저렴하게 구입, 섭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북도의회 강용구, 이정린 의원과 임순남타임즈 우용원 발행인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남원 검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용구, 이정린 도의원은 경선 시작일인 지난달 24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중앙당이 징계처분을 내린 권리당원 불법조회 사실을 부정하고, 권리당원 명부 불법조회 사건의 고발인이 박희승 예비후보가 아님에도 마치 박 후보가 고발했다는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처럼 표현했다.

또한 이들은 임순남타임즈 인터뷰를

통해 “박희승 체제의 지역위원회가 허위사실로 같은 지역구 현역 도의원을 고발했으나 무고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임순남타임즈는 “지역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원을 도구화하기 위해 검박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경선투표일 직전인 3월 2일자 신문 1면과 3면에 기사화 해 남원·임실·순창 지역의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다량 배포하고, SNS 등 온라인 매체에 이를 유포해 권리당원 및 일반시민 경선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환주 남원시장은 12일 남원시청 공무원과 함께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지역 상점가와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물품구매와 함께 상인들을 격려했다.

순창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추진

빈집 활용 저소득층·신혼부부·귀농·귀촌인 등에게 무상임대

순창군이 관내 빈집을 활용해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에게 무상임대에 나서며 주거비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군은 지난 11일 관내 빈집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시설수리비 일부를 지원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임대해주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빈집을 새단장해 저소득층과 귀농인, 신혼부부, 마을활동가 등에게 무상임대해주는 것으로, 전북도와 순창군이 각각 1억 5천만원씩 총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

진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설개선비 중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5%로 총 사업비가 추가되면 자부담도 추가된다.

지원조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줘야 하며, 주택매매 등 소유권 이전시에도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한다. 단, 무상임대 및 의무임대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게 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집주인들에게는 시설보수로 자산가치를 늘리는 한편 귀농·귀촌인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어서 군은

로 이주를 유도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순창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는 초기 안정적 정착으로 타 지자체로 이주하는 사례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대상은 관내 비어있는 빈집 및 공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건물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순창군청 농촌개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순창읍내 빈집에 대해서도 수리비를 지원해 반값 임대공간으로 주차장이나 텃밭 등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전통시장·상점가 살리기 나서

이환주 시장,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물품구매·상인 격려

남원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상점가 살리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이환주 시장은 12일 남원시청 공무원과 함께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지역 상점가와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물품구매와 함께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침체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기 부양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설명하며 상인들의 호소에 귀 기울였다.

남원시는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남원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영세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특별보증 및 이차지원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이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자에게 ‘미아방지팔찌’ 지급

순창군이 이달부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자에게 ‘미아방지팔찌’를 지급한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는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관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다.

아이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부모는 물론 아기에게도 소중한 의미가 되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이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미아방지팔찌 또한 아이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자녀 출생에 축하의 의미를 더하고 함께 기념하고자 마련했다.

팔찌에 NFC(근거리무선통신) 태그가 탑재되어 부모가 별도 애플리케이션에 이를, 연락처 등 아이 관련 정보를 저장하면 누구나 스마트폰 NFC기능을 통해 아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미



아방지에 효과적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생태계 복원 위해 은어 5만마리 방류

남원시는 12일 노안동 승월교 주변 요천에서 토종 민물고기 방류행사에 공무원 및 내수면 어업계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은어 50,000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은어는 전라북도 수

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 시험장에서 지난해 10월 부화해 약 5개월간 육성한 5cm 이상의 건강한 치어로 오는 가을이면 방류한 주변 하천에서 18~20cm까지 성장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2019년 하반기 신속집행 최종평가 ‘우수’

남원시가 지난해 행안부 하반기 신속집행 중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도가 실시한 2019년 하반기 신속집행 최종평가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인센티브 1억원을 받는 등 총 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평가에는 지난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전체 통계목과 소비(인건비, 물건비 등 37개통계목), 투자(시설비 등 5개통계목) 예산 대상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및 소비·투자예산 집행 실적을 각 50%씩 반영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남원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소비·투자 예산 집행실적 부문에서 71.2% 집행률을 기록해 도내 시 단위 1위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매월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신속집행을 추진했다.

이환주 시장은 “올해도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고 신속집행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실현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성인문해교육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남원시가 다양한 이유로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삶의 질 개선 및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해교육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5,900만원의 예산을 받게 됐다.

이번 선정에서는 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 3개소(평생학습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가 선정되었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의에도 전북도 보조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한글학당 프로그램에 천백만원을 지원하여 29개소 395명의 학습자들이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